

디지털시대 중년가족의 여가문제

이 승 미 (우석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부 조교수)

중년가족의 여가는 중년가족 구성원들의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여가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즉 가족구성원인 청소년 자녀의 경우 가족에게서 독립하여 자립하는 시기로서 가족 이외의 친구집단 속에서 또래와의 대등한 상호관계를 기초로 개인적·자율적 여가를 창조해 나가게 된다. 중년가족의 남편과 아내는 이전시기에 부모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반구속적이고 가족서비스적인 특성을 갖는 가족집단적 여가에서 부부연합적 여가 또는 부부 각자의 개인적 여가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등장한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생활편의품들은 인간의 개별화를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한편 여가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특히 중요한 여가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관리학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여가연구(홍성희, 1996; 지영숙 외, 1999; 지영숙·이태진, 2001)에 의하면,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여가의 본래적 기능 이외에, 가족의 이해와 행복을 가족 공동의 것으로 만들며, 가족으로 존중되고 안심과 신뢰를 형성하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또한 가족에 기초한 여가활동은 가족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의 습득에 도움이 되며, 여가의 일탈화 현상에 대한 좋은 방지책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 하에서, 중년가족의 여가문제를 다음과 같이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생활주기의 발달단계로 볼 때, 중년가족의 여가는 가족집단적 여가에서 개인적 여가로 이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개별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여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년가족 주부의 경우 취업여부와 소득계층에 따라 여가의 양상이 매우 다르지만, 중산층의 중년기 전업주부집단이 상대적으로 여가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집단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가활동 참여가 개인 및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활동참여가 낮다(김외숙, 1991)는 점에서, 주부의 여가활동이 다소 소모적이고 개인적인 만족에 국한되거나 가정성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사회단체의 참여나 봉사활동이 중년주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주고 역할부재와 아노미를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동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부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사회로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여성전문 포털사이트가 확대되고, 사이버상에서 주부들이 차지하는 파워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주부들의 관심을 보다 확대시키는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자녀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학업비중이 매우 높고, 청소년을 위한 제반 여가시설이 매우 열악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대부분이 TV시청이나 오락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둘째, 중년기가족의 여가가 개인적 여가에 치중되는 특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속에서 누리는 안정과 심리적 행복, 응집성과 소속감이 여전히 중요하고 가족단위의 여가가 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여가와 가족여가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중년기가족의 여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여가의 경우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가족 상호간의 관심과 공동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간의 대화나 단란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이메일 등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단위의 여가가 가족외식이나 가족나들이·여행 등의 소비지향적 성향을 지님에 따라 여가의 계층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공공재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족단위의 여가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책임의식의 습득, 여가의 일탈화의 방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녀의 또래와의 연계 등의 다양한 측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가족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집단적인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도 필요할 것이다.